

# 금융 Weekly Insight

증시 수급 쏠림에 따른 전반적 약세 시현 – 펀더멘털 변화에 집중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6월 첫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KOSPI 지수 상승(8.0%)에도 불구하고 은행, 증권, 보험 모두 w-w 하락세 시현.
- 연초 이후 주가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증권 업종이 차익실현 강도가 가장 강했으며, 은행 및 보험 업종은 금리 인상 가능성 등 기대감으로 주가하락 다소 방어.
- 경제 성장을 회복에 기반한 금리 상승은 결국 금융업종 입장에서는 긍정적. 은행업종은 내수 경기 회복 수혜 관점에서, 보험업종은 장기 보험 부채 부담 경감 관점에서 접근이 타당.

## 금융 Overview

- 은행 – 경제성장률 상향 기반 금리 인상 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은 긍정적 요인: 은행주는 5.2% 하락. 다만, 지난 주 핵심 중 하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사. 한국은행의 점도표에 따르면 향후 6개월 이내 기준금리는 현재 2.5%에서 3.0%로 50bp 상승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을 상향 조정. 즉, 경제 성장률의 회복과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는 은행 입장에서 건강한 대출 수요의 증가, NIM의 상승, 그리고 자산건전성 부담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실적에 긍정적 요인. 더 나아가,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을 견인한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 확대 노력 제고와 가계 소득 증가 등에 따른 내수 소비 여력 개선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경우, 은행주는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 수혜 관련 업종이라는 관점에서 투자심리 회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초점 필요.
- 증권 – 실적 기반 기대감 유효: 증권 업종 주가는 전주 8% 이상 하락하며 KOSPI를 크게 언더퍼폼. 다만, 이는 반도체 업종 쏠림 현상에 따른 타 업종 차익실현 니즈 집중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증권업종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가지수가 가격의 역할 (Ticket Size)을 하는 만큼, 거래대금 증가 → 실적 개선 흐름의 효과는 여전하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 1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하여 차익실현 니즈가 집중되고 있으나, 1) 100조원을 초과하는 5월 일평균거래대금 및, 2) 주가지수 상승 영향에 따른 분기 운용 수익 호조 가능성 등에 기반할 때, 2분기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며,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증권주 중심으로는 비중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라 판단.
- 보험 – 펀더멘털 긍정적, 다만 얇은 수급 기반이 관건: 금리 상승에 따른 방어주 성격이 부각되며 2주 연속 상승하였던 보험주 또한 삼성생명, 화재를 제외하면 큰 폭의 주가 하락을 시현하였음. 1) 금리 상승 기조 전환에 따른 CSM 마진 상승, 미래 부채 부담 경감, 2) 관리급여 출시에 따른 실손 손해율 안정화 기대감 등 펀더멘털 방향성은 보험주에 우호적으로 전개. 다만, 반도체 업종 수급 쏠림에 따른 차익실현 영향에서 보험업종 또한 자유롭지 못하였음. 특히 하위 보험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수급 기반에 따라 주가수익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p><b>(5/25) 기본금융 4중세트 본격 논의 - 막대한 재원 마련은 과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에서는 금융기본권 개념 정립부터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이를 토대로 금융취약계층 대상 기본채무조정, 기본보험, 기본대출, 기본저축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구상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li> <li>- 서금원은 금융접근권과 금융생존권, 금융재기권, 금융자립권, 금융자산형성권 등 5대 금융기본권 토대로 금융사다리 구축 방안을 제시.</li> <li>- 시장에서는 기본금융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고, 단순히 급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닌 재기와 자립에까지 도움이 되는 구조여야 하며, 이에 대한 막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는 것.</li> </ul>	<p><b>금융 부문에서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b> 해당 언론 보도는 시장 내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언급. 즉, 과도한 양극화는 오히려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p> <p><b>관건은 비용, 도덕적 해이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b> 과거에도 여러 국가에서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관건은 비용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사회적 합의. 막대한 재원에는 분명 세수가 투입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오히려 금융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야기될 경우, 금융 시스템에서의 '신용'에 대한 가시성이 낮아지는 만큼, 이는 금융사의 리스크를 높이거나, 혹은 선량한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 비용을 높이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 더 나아가, 금융 약자에 대한 혜택에 따라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용을 부담하는 소비자들의 합의 도출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 필요.</p>
	<p><b>(5/25) 은행들 자체 채무조정 4배 증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취약자에 대한 대대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자체 채무 조정 실행건수는 올해 들어 4월까지 461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배 수준에 육박. 금액 또한 359억원으로 전년 105억원대비 3배를 상회.</li> <li>-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등과 달리 금융사가 고객의 빚을 자체적으로 조정해주는 제도. 24년 10월 개인 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신청 가능.</li> <li>- 이와 같은 채무조정 증가는 2월 개인 연체채권 관리강화 방안 발표에 포함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조치에 기인.</li> </ul>	<p><b>채무조정 증가 - 다만 은행 실적 영향은 제한적:</b> 채무조정 증가에도 불구하고 은행 실적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 전망. 언론 보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올해 4월까지 채무조정 실행 금액은 359억원으로 연간 1천억원가량의 pace임. 이를 5개 은행별로 균등 배분 시 은행별 영향은 200억원대 수준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p> <p><b>채무조정 증가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 모색은 여전히 과제:</b> 다만, 이와 같은 흐름은 부작용도 초래 가능. 일례로, 은행의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은행의 입장에서 상대적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의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 기여가 낮아질 경우, 보다 안정적 수익원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 또한, 대출 관련 비용의 증가는 은행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금리 스프레드 확대로도 야기가 가능. 즉,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모색이 향후 관건.</p>
	<p><b>(5/26) KB 방카슈랑스 역할 재정립 - 생애 전주기 자산관리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금융은 방카슈랑스를 전면개편. 저축성보험 위주 판매채널을 넘어 고객 맞춤형으로 생애주기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 허브로서 역할을 재정립.</li> <li>- 고령화 시대 고객의 장기적 Lock-in이 가능한 방카슈랑스를 WM전략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특히, 방카슈랑스를 단순 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춰 보험, 투자, 노후설계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것.</li> <li>- 이를 위해 동사는 방카슈랑스 상품개발 초기단계부터 은행과 보험사 상품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일시납 상품 중심에서 일본, 프랑스의 하이브리드 상품, 종합자산관리 관점 절세솔루션 중심 구조를 벤치마크 계획.</li> </ul>	<p><b>국내 자산관리 영업은 여전히 상품판매 중심 - 자산관리 역량보다는 판매 역량에 초점:</b> 국내 금융사들이 자산관리 영업을 강화해 왔으나, 엄밀한 의미로는 자산관리보다는 상품 판매에 보다 치중되어 왔음. 하지만, 이와 같은 영업 행태는 반대로 소비자로서 하여금 언제든지 보다 나은 상품을 찾아 떠날 수 있음을 시사. 이는 결국 금융사들의 입장에서 자산관리 역량보다는 단순 상품 소싱 및 수수료와 같은 가격 경쟁력이 보다 중시되는 악순환을 야기.</p> <p><b>머니무브와 플랫폼의 성장 속 자산관리 중심의 영업 전환 필요성 증대:</b> 그러나, 이와 같은 상품 판매 중심의 자산관리 영업은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 특히, 머니무브와 금융 플랫폼의 성장 속에서, 여기에 금융시장의 변동성마저 높아지며 상품 경쟁력만으로는 고객의 Lock-in의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는 것.</p> <p><b>KB금융의 강점 - 다양한 금융 라인업과 은행 고객 기반:</b> 이러한 상황에서 KB금융의 이와 같은 전략은 긍정적. 동사는 은행 고객 기반과 금융그룹 산하 다양한 계열사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단순 플랫폼이 제공할 수 없는, 보다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 결국,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향후 관건.</p> <p><b>보험의 의미 - 고령화 시대 은퇴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고객과의 다른 접점:</b> 통상적으로 은행은 고객이 은퇴 이후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경우, 기존 고객과의 접점이 약화. 반면, 보험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연금, 절세 기능 등을 통해 고객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 KB금융은 생보와 손보 모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계열사를 보유한 만큼, 이의 그룹 내 시너지 창출 여부가 향후 관건.</p>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p><b>(5/26) 국내 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 익스포저 56조원 - 관리 가능한 수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전 금융권과 주요 연기금, 공제회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2월 말 기준으로 55.9조원이었으며, 이 중 금융권이 30.5조원, 연기금 및 공제회가 25.4조원을 기록.</li> <li>- 금융권 내에서는 보험이 20.6조원으로 금융권 전체의 67.4%를 차지하였고, 이어 상호금융이 4.7조원, 증권사 2.8조원, 은행 2조원 순이었음.</li> <li>- 총자산대비 투자비중은 금융권 기준 0.42%였으며, 보험 1.53%, 상호금융 1.44%, 증권 0.30%, 은행 0.05% 등 순이었고, 연기금은 1.2% 비중 기록.</li> </ul>	<p><b>사모대출 익스포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b> 연초 우려가 컸던 국내 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 익스포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 특히, 은행의 익스포저는 2조원으로 전체 자산의 0.05%에 불과한 만큼, 은행의 건전성은 물론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p>
	<p><b>(5/27) 금융사 생산적 금융 실적 공개 의무화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당국이 매년 4분기 금융회사별 생산적 금융 추진 실적 팩트북 공개를 추진.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금융사들이 생산적 금융 역량을 내재화하라는 취지.</li> <li>- 금융사들은 실적 공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 팩트북 공개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지만, 통일된 기준 없이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li> <li>- 금융위는 세부 기준은 세우지 않는다는 방침. 획일화된 기준보다는 금융사별 장점을 살려 전략을 펴게 하려는 취지라고 언급.</li> </ul>	<p><b>은행의 강화된 자본력 - 생산적 금융 강화로의 전환은 분명 긍정적:</b> 당초 은행들의 주담대 중심 영업 강화는 은행의 건전성 개선은 물론 자본비용 제고를 견인.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ET-1 비율을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수준까지 높이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은행의 영업행태는 불가피한 측면이 높았다고 판단. 반면, 주요 금융그룹들의 CET-1비율이 13%를 넘어섰고, 가계부채비율의 하향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 강화는 ROE 제고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p> <p><b>다만, 쏠림 현상은 경계 필요:</b> 다만, 과거 수 차례의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금융권의 쏠림 현상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경계는 분명 필요. 한국의 제한된 경제 규모 하에서 일정 분야에 대한 집중과 과도한 자산 경쟁은 오히려 필요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의미하고, 이는 금융사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건전성 훼손,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일 수 있기 때문. 즉,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생산적 금융 강화가 금융사들과 차주, 그리고 경제가 Win-Win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p>
	<p><b>(5/28) 한국은행 금리 인상 시사 - 점도표 절반이 6개월뒤 3% 전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상승으로의 전환을 시사.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에서는 연 3.0%에 가장 많은 10개의 점이, 2.75%에는 7개, 3.25%와 2.50%는 각각 2개로 제시.</li> <li>- 한국은행은 이날 경제 전망에서 GDP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2.7%로 상향.</li> <li>- 한은은 환율에 대해서도 쏠림 현상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 언급.</li> </ul>	<p><b>기준금리 인상 - 경제 회복과 맞물린 점진적 인상은 긍정적:</b>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은행 펀더멘털 영향을 가능하기 쉽지 않음. 일례로, 과거 러-우 전쟁의 경우, 경기 악화와 고물가,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맞물리며 은행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대표적. 결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경기 상황과 금리 인상 속도.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점진적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한국의 경제성장률 또한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은행의 펀더멘털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크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p>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p><b>(5/28) 삼전·하닉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첫날 거래대금 10.4조, 시총 4.9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 첫날 합산 거래대금 10.4조원, 시총 4.9조원을 기록하며 폭발적 수요 확인.</li> <li>- 상장 즉시 전 종목 VI(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될 만큼 높은 변동성.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장중 20% 이상 급등 기록.</li> <li>- 레버리지 ETF 사전 교육·예약금(1,000만원) 요건은 5월부터 해외 레버리지 ETF에도 동일 적용.</li> </ul>	<p><b>개인투자자들의 높은 레버리지 수요 확인:</b>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첫날 거래대금 10.4조는 물론 상장 초기 ETF 특수 효과가 반영된 수치이나 국내 투자자의 레버리지 수요가 구조적으로 강력함을 재확인. ETF 운용사 및 LP 수탁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확대에 직접 기여, 브로커리지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 다만, 단일종목 ETF가 기초자산(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웨더독(Wag the dog) 효과에 대한 당국 모니터링 강화 예상. 향후 추가 하락 시 변동성 조절 여부 및 발행 가능 기초자산 확대 여부가 ETF 시장 성장의 핵심 변수.</p>
	<p><b>(5/27) 국민성장펀드 이틀 만에 97.5% 소진...은행·증권 온오프라인 완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22일 출시된 국민성장펀드(정부 손실 20% 보전·3년 유지 시 소득공제 혜택)가 판매 이틀 만에 97.5% 소진.</li> <li>- 은행 채널에서는 온·오프라인 모두 사실상 완판. 증권사 오프라인 채널에만 잔여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li> <li>- 국민성장펀드는 이후 금투협 규정 정비를 통해 가입 후 증권사 간 이전 거래도 가능해질 예정.</li> <li>- 출시 동시에 운용사별 포트폴리오 구성(AI·반도체·바이오 등 성장주 중심)에도 관심 집중.</li> </ul>	<p><b>다양한 리스크 선호도 투자자의 자본시장 유입 유도 중:</b> 국민성장펀드의 빠른 판매량 소진은 정부의 손실 보전 구조가 리스크 회피 성향의 신규 투자자 유입에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함을 입증. 증권사로의 이전 거래 허용은 향후 은행 가입자의 증권사 이전을 유도하는 채널 경쟁으로 이어질 전망, 투자 성과 차별화가 이전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국민성장펀드 완판은 정부의 지속적인 증시 부양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그널로, 2Q 이후 추가 증시 진화 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 유지.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운용이 현 반도체 랠리 환경과 맞물리는 시기에 출시된 만큼, 초기 성과가 장기 보유 및 추가 유사 펀드 출시의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p>
보험	<p><b>(5/26) DB손보, 美 특화보험사 포테그라 5/30 인수 마무리...국내 최초·업계 최대 2.3조 해외 M&amp;A</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B손해보험이 5월 30일 미국 특화보험사 포테그라(The Fortegra Group) 지분 100%를 16억5,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에 최종 인수 완료.</li> <li>- 국내 보험사 최초의 미국 보험사 인수이자 보험업계 사상 최대 규모 해외 M&amp;A.</li> <li>- 1978년 설립된 포테그라는 플로리다 잭슨빌 본사 기반의 특화보험·신용보증보험·보증 서비스 전문 글로벌 보험그룹으로 미국·유럽에 사업망 보유.</li> <li>- DB손보는 이번 인수로 해외 매출 비중을 23.7%까지 끌어올리며, 1984년 광 지점 개설 이후 40여년 만에 미국 본토 보험사 보유 단계로 진입.</li> </ul>	<p><b>포화된 국내 시장에서 돌파구 마련:</b> 금번 인수는 국내 포화 시장의 구조적 성장 한계를 해외에서 돌파하는 전략 현실화로 평가. 인수 작업 이후에는 재무제표에 높은 해외 매출 비중(23.7%) 및 ROE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향후 관건은 1) 대규모 자금 투입에 따른 K-ICS 변동성 확대 가능성 및, 2) 현지 보험사 인력, 리스크 관리 등 화학적 결합의 성공적인 마무리 여부가 될 것. 한편, 회사 측은 지난 실적설명회에서 포테그라 인수 마무리 이후 신규 밸류업 정책 공시를 시사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p>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 1.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6-01 (월)	4월 온라인쇼핑동향	미국 5월 ISM 제조업지수 미국 4월 건설지출 유로존 5월 제조업 PMI 확정치 유로존 4월 실업률 독일 4월 소매판매 영국 5월 제조업 PMI 확정치 일본 5월 제조업 PMI 확정치 중국 5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2026-06-02 (화)	5월 소비자물가동향	미국 4월 구인 및 이직(JOLTs) 보고서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 영국 4월 협의통화 및 준비잔고
2026-06-03 (수)	국내 증시 휴장	미국 연준 배이지북 공개 미국 5월 ADP취업자 변동 미국 5월 ISM 비제조업지수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5월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미국 4월 공장주문 미국 주간 원유재고 유로존 5월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유로존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독일 5월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영국 5월 CIPS/S&P 글로벌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일본 5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 중국 5월 레이팅독 종합·서비스업 PMI
2026-06-04 (목)	5월 외환보유액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1분기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확정치 유로존 4월 소매판매 일본 5월 외환보유액
2026-06-05 (금)	4월 국제수지(잠정) 한국거래소, 중북상장 규제 가이드라인 공개	미국 5월 고용동향보고서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미국 4월 소비자신용지수 유로존 1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 영국 5월 할리팩스 주택가격지수 일본 4월 가계지출 일본 4월 경기동향지수(예비치)

자료: 삼성증권

2026. 6. 1

###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조원)	주가 (원)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6,733.7	8,476.2						8.0%	26.7%	211.5%	101.1%
	KRX은행	193.6	1,492.3						(5.2%)	(8.6%)	47.5%	14.5%
	KRX증권	89.2	2,568.8						(8.4%)	(7.8%)	130.5%	67.9%
	KRX보험	130.0	3,869.8						(2.2%)	16.2%	89.6%	44.6%
	결제 지수**	1,422	n/a						(5.6%)	(12.1%)	53.4%	8.4%
은행	KB금융	56.2	150,600	57.1	0.9	11.4	8.2	12.9	(5.9%)	(6.2%)	46.6%	20.8%
	신한지주	44.4	93,600	53.6	0.8	10.4	8.0	15.5	(4.7%)	(6.4%)	62.8%	21.7%
	하나금융지주	31.6	115,100	50.8	0.7	10.6	7.1	12.3	(5.7%)	(9.4%)	59.4%	22.3%
	우리금융지주	21.8	29,700	44.5	0.6	10.6	6.2	12.1	(5.9%)	(11.3%)	54.3%	6.1%
	기업은행	16.1	20,200	36.0	0.5	8.5	6.2	2.2	(3.8%)	(10.4%)	29.2%	(3.6%)
	BNK금융지주	5.2	16,820	45.1	0.5	8.3	5.9	9.5	(3.7%)	(10.8%)	51.3%	6.0%
	JB금융지주	4.5	23,900	42.2	0.5	9.5	5.2	21.9	(5.0%)	(11.8%)	25.9%	(6.8%)
	iM금융지주	2.8	17,340	51.8	0.8	13.2	6.0	6.6	(8.4%)	(8.7%)	56.1%	11.5%
카카오뱅크	10.7	22,400	50.0	1.4	8.8	17.2	29.1	(1.8%)	(8.8%)	(6.3%)	3.7%	
증권	미래에셋증권	34.4	61,400	40.5	2.0	18.2	15.2	72.9	(9.0%)	(9.3%)	272.4%	164.1%
	NH투자증권	10.8	30,200	45.7	1.3	12.6	11.1	19.4	(8.1%)	(12.7%)	73.1%	43.1%
	한국금융지주	13.2	237,500	22.4	1.1	20.0	6.4	23.6	(6.7%)	(4.6%)	119.3%	46.9%
	키움증권	9.7	370,500	22.6	1.6	22.6	7.8	44.7	(9.0%)	(12.5%)	131.0%	28.0%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7.2	102,900	50.0	1.7	22.8	8.2	14.9	(5.8%)	(9.7%)	(9.7%)	(9.0%)
	삼성화재	25.4	569,000	45.1	1.0	10.1	10.9	12.0	0.0%	22.6%	42.4%	14.5%
	삼성생명	77.7	388,500	46.3	0.6	3.7	15.9	17.8	6.6%	54.2%	290.8%	146.5%
	DB손해보험	9.4	143,100	32.3	1.1	16.6	6.6	9.0	(7.4%)	(16.9%)	40.8%	9.2%
	한화생명	4.2	4,880	16.4	0.3	5.6	6.3	37.8	(12.9%)	(3.9%)	59.7%	49.9%
현대해상	2.9	34,550	11.7	0.5	17.5	3.3	18.3	(10.6%)	9.9%	37.4%	12.2%	
결제	카카오페이	6.3	46,550	n/a	n/a	6.9	49.6	180.2	(6.9%)	(17.8%)	19.1%	(5.2%)
	NHNKCP	0.7	17,930	n/a	n/a	17.9	12.3	28.8	(4.4%)	(11.0%)	135.6%	20.3%
	KG이니시스	0.3	10,000	n/a	n/a	7.1	4.8	9.9	(5.1%)	(12.7%)	11.1%	(2.2%)
	KG모빌리언스	0.2	4,135	n/a	n/a	10.3	4.9	12.1	(8.1%)	(22.6%)	(5.4%)	(12.0%)
	나이스정보통신	0.3	26,950	n/a	n/a	9.1	4.7	39.4	(7.7%)	(7.1%)	29.9%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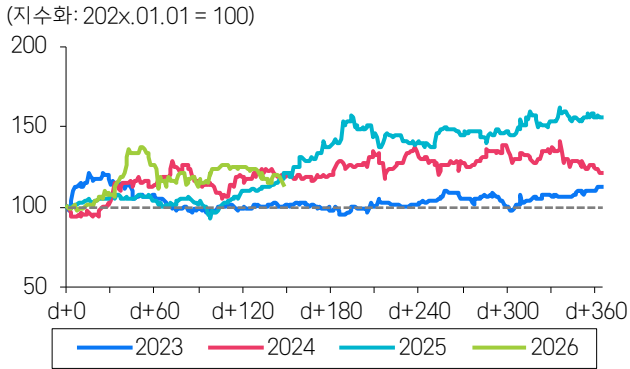
참고: 5/29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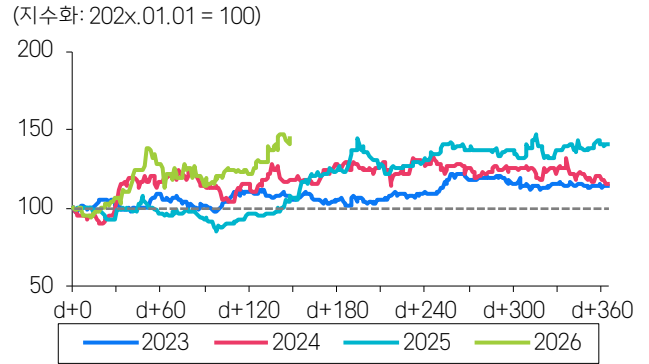
###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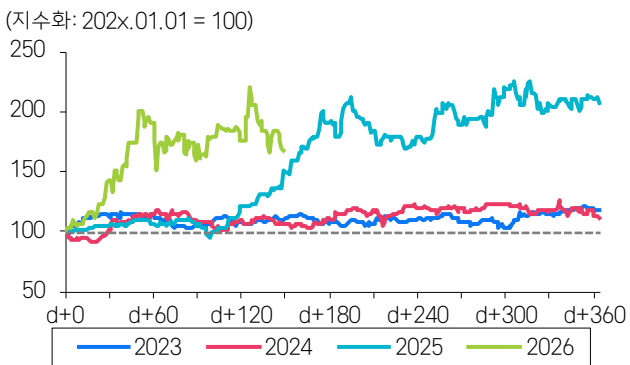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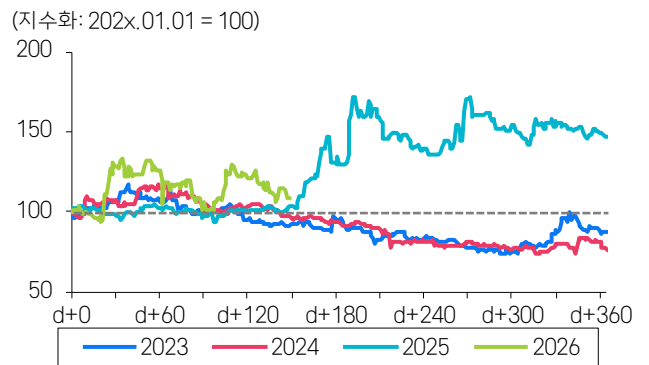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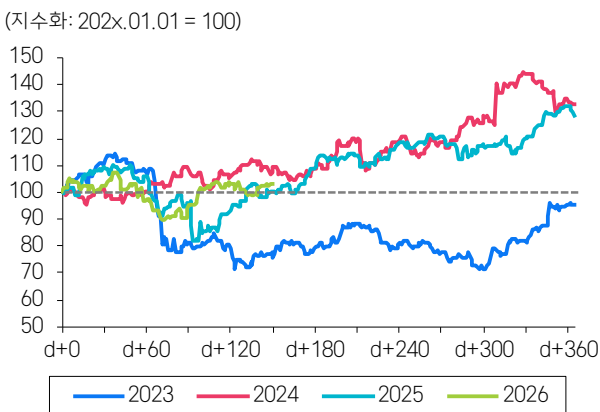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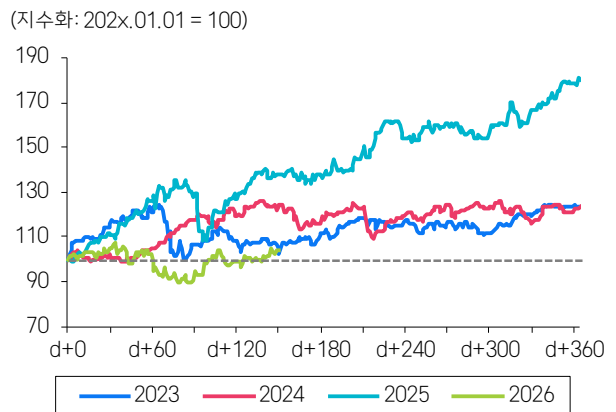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2026. 6. 1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02.0	80.2	2.2	17.1	13.4	11.5	(2.3)	(4.4)	13.4	(7.1)
		Bank of America	366.2	103.2	1.3	11.7	11.5	17.5	(0.4)	(3.5)	16.9	(6.2)
		Citigroup	214.7	116.9	1.1	9.7	11.6	54.9	0.6	(1.6)	67.2	7.9
		Wells Fargo	237.3	97.7	1.4	12.8	11.1	11.2	1.5	(5.7)	3.7	(16.8)
		PNC Financial	88.8	74.9	1.5	12.7	12.0	10.8	0.9	(0.8)	27.2	5.9
	유럽	Banco Santander	183.7	63.7	1.5	13.7	9.9	12.9	2.9	3.4	52.6	6.5
		Unicredit	130.5	81.3	1.6	17.0	9.8	7.9	3.0	13.1	31.3	4.7
		BBVA	132.1	89.0	1.9	19.2	9.8	16.2	4.2	6.9	52.2	0.3
		ING Group	90.9	85.5	1.5	13.3	11.2	10.3	1.0	7.9	43.9	12.0
		Lloyds	80.0	80.6	1.3	13.7	10.2	44.7	2.3	2.2	32.0	3.7
		Barclays	83.6	66.5	0.9	10.7	9.1	19.5	2.7	6.1	39.8	(3.8)
	일본	Mitsubishi UFJFG	223.3	57.8	1.5	11.5	13.2	6.5	(3.0)	7.2	48.1	20.3
		Sumitomo Mitsui FG	139.7	50.6	1.3	11.2	12.5	13.3	(3.1)	5.0	57.3	15.4
		Mizuho FG	110.3	55.2	1.5	11.7	13.1	9.1	(3.5)	7.3	79.8	26.2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61.3	30.6*	0.6	9.1	6.4	3.5	(3.1)	(5.5)	16.3	5.6
China Construction Bank		291.6	29.8*	0.6	9.6	6.4	2.2	(3.2)	(3.3)	20.6	10.4	
Agricultural Bank of China		320.8	30.2*	0.7	9.9	6.9	7.7	(2.5)	(5.1)	14.5	(0.2)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23.0	N/A	1.4	5.9	22.1	(31.0)	(2.4)	(0.1)	(6.1)	(5.8)
		AIG	39.4	82.2	0.9	11.1	10.3	흑전	(3.7)	(0.8)	(12.3)	(13.2)
		Travelers Insurance	62.1	83.5	1.8	18.5	10.3	2.8	(4.8)	(4.3)	5.9	0.6
	유럽	Allianz	169.2	81.0	2.2	18.5	12.4	11.3	(1.0)	(1.9)	9.4	(2.3)
		AXA	96.8	59.3*	1.7	16.2	9.6	(8.4)	(1.0)	(3.0)	(4.3)	(3.0)
		Generali	69.2	58.1*	1.7	14.1	12.5	12.6	(0.6)	1.6	20.8	8.3
	일본	Tokio Marine	86.3	48.3*	2.5	18.8	13.8	(0.0)	(3.7)	0.3	16.3	22.2
		Daiichi Life Insurance	37.2	63.5	1.5	11.8	12.8	6.5	(0.9)	15.0	45.0	25.5
	중국	Ping An Insurance	141.4	36.2*	1.0	13.7	7.4	5.5	(1.3)	(4.7)	30.1	(7.8)
		China Life Insurance	131.5	19.2*	1.2	18.6	6.5	(18.7)	(0.1)	0.9	80.7	5.5
		PICC P&C Insurance	41.3	38.5*	1.0	13.5	7.9	1.4	(1.6)	3.9	(2.6)	(11.1)
	증권	미국	Goldman Sachs	314.4	107.7	2.8	16.4	17.3	15.7	2.9	11.0	70.8
Morgan Stanley			328.1	72.6	3.0	17.7	17.5	16.3	3.5	9.1	62.5	17.2
Charles Schwab			156.4	96.4	3.2	23.4	14.6	28.3	(3.1)	(4.7)	(1.1)	(12.6)
Robinhood			85.0	43.3	8.1	17.6	50.2	(8.5)	28.1	29.4	42.6	(16.6)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15.9	77.7	6.3	35.2	17.9	14.7	1.5	(2.0)	7.6	(14.5)
결제	미국	VISA	630.0	21.4*	18.2	66.0	25.5	25.4	(0.8)	(1.1)	(10.6)	(6.9)
		MasterCard	436.6	18*	50.5	224.5	25.4	17.5	(0.9)	(1.8)	(15.6)	(13.5)
		PayPal	39.5	5.9*	1.9	23.3	8.8	(6.2)	1.2	(10.7)	(36.3)	(23.3)
	유럽	Adyen	34.5	0*	4.5	21.3	23.8	17.6	(1.9)	(2.0)	(44.4)	(31.7)
핀테크	미국	Block	45.1	0*	1.9	10.1	33.9	6.5	11.2	7.4	22.6	16.3
		Upstart	3.2	0*	3.9	19.1	37.7	99.3	18.3	7.0	(28.4)	(22.7)
		Affirm	24.7	0*	5.9	11.8	59.1	730.8	12.9	14.6	41.9	(1.0)
	중국	LuFax	1.4	N/A	0.0	(0.1)	N/A	흑전	0.6	(13.6)	(43.7)	(35.5)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5/29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 삼성증권

###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